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 이라크 전쟁의 국제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

설 인 호*

1. 서론
2. 전쟁 분석의 틀
3.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 이라크전 실패 이유 분석
4.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전 이후의 전쟁 예측
5. 결론 및 함의

1. 서론

500년 전 마키아벨리는 ‘전쟁은 당신이 원하면 시작할 수 있으나 당신이 원한다고 끝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과 이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의 전쟁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은 미래의 전쟁에도 계속 적용된다. 인간의 행동에는 교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기 때문이다.

* 한국국방연구원

이라크 전쟁은 이라크 국내의 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미친 세계사적 영향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전쟁사적으로도 이라크 전쟁은 많은 가설과 주장들이 시험된 무대였고 이제 그 유효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¹⁾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미친 세계사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평가와 고찰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근욱은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실패를 분석한 논문 및 저서에서 ‘전쟁의 미래(the future of war)’와 ‘미래의 전쟁(future war)’의 구분을 제안한 바 있다.²⁾ 미국은 새로운 군사력과 전쟁수행방식으로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³⁾을 추진하면서 ‘전쟁의 미래’, 즉 전쟁 수행 방식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했지만, ‘미래의 전쟁’, 즉 전쟁을 둘러싼, 전쟁의 전반적 양상을 규정하는 정치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국이 실패한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다.

1)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최근 『뼈아픈 교훈(Hard Lessons): 이라크 재건의 경험』 보고서를 번역 발간한 바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뼈아픈 교훈(Hard Lessons): 이라크 재건의 경험』(2013, 10). 본 보고서는 미 국방부 예하 ‘이라크 재건 특별감찰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로서 이라크 재건 프로그램에 대한 수백 명의 인터뷰 내용과 수천 건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정치 및 군사적 교훈을 주제별로 제시한 것으로 이라크 전의 정치, 군사적 교훈을 집대성하고 있다. 또 손석현은 이라크 전쟁의 안정화 작전 국면의 교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저서를 발간하고 있다. 손석현, 『이라크 전쟁과 안정화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2) 이근욱,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군사혁신의 두 가지 측면”, 『신아세아』 17권 1호 (2010, 봄), pp.137~161; 이근욱,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서울: 한울 아카데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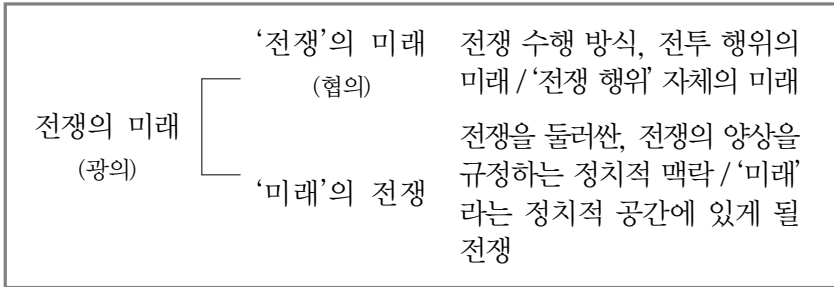
3) 군사혁신이란 기술, 무기체계, 교리, 조직 등 군사 분야 전반(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일컫는 것이다. 이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수렴되었다. Eliot Cohen,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Military Affairs”, *The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27, No. 3. (September 2004), pp.395~407.

이러한 구분은 단지 탈냉전기 미국 국방개혁의 비전이자 구호로서 ‘군사 혁신’을 분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쟁 일반을 분석하는 훌륭한 틀이 될 수 있다. 정치집단 간의 조직적 무력 투쟁으로 정의되는 전쟁은,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금언을 빌릴 필요도 없이 정치적 공간에서 시작되어, 정치의 공간에서 진행되고, 정치적으로 평가받는 정치현상이다. 요컨대 전쟁의 양상은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결코 이해되고, 예측될 수 없다.

동시에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에는 정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 없는 ‘군사의 독자적 영역’이 존재한다. 예컨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전력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 이에 따라 전쟁 수행 방식이 변화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이상 정치적 요소와는 독자적인 현상이다. 그 결과 전쟁의 정치적 측면은 ‘미래의 전쟁’으로, 군사적 측면은 ‘전쟁의 미래’로 포착,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쟁의 정치적 측면이 전쟁의 군사적 양상을 규정하기도 하며, 군사적 측면이 특유의 정치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든 현상은 하나의 전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포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단어 사용의 일반적 용례를 고려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전쟁의 미래’라는 말 속에는 이근욱의 정의에 따른 ‘전쟁의 미래(협의)’와 ‘미래의 전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광의의)‘전쟁의 미래’를 일반적인 전쟁의 미래 예측을 위한 개념으로 상정하면서 협의의 ‘전쟁의 미래’는 ‘전쟁’에 초점을 둔 미래를, ‘미래의 전쟁’은 ‘미래’에 초점을 두고 ‘미래’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벌어질 전쟁의 양상을 예측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1〉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개념 구분



한 번의 전쟁이 끝나면 다음 전쟁에 대비하면서 ‘전쟁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지난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그 전쟁을 대비하며 구상했던 ‘전쟁의 미래’가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이었는가 될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이 구성된다.⁴⁾ 나아가 이러한 평가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이라크전 이후의 전쟁에 대한 예측은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라크 전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와,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전쟁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교훈을 어떻게 도출하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작업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따라 먼저 분석의 틀로서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을 보다 엄밀히 정의하고 체계화한다. 이는 근대 이후 전쟁의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입각한 분석이 될 것이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이라크 전쟁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을 다룬다. 이는 주로 이라크 전쟁에 임하는 미국의

4) 이근욱의 분석과 같이 이라크전의 전체적 맥락은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구상, 이에 임하는 전략적, 군사적 준비의 문 제라는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전쟁 구상과 실제 이라크 전쟁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될 것이다.⁵⁾ 제IV장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후 전쟁의 미래 양상에 대한 예측으로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를 주제로 분석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의 분석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것이 향후 한국에 대해 갖는 의미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2. 전쟁 분석의 틀

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근·현대전쟁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서양의 군사고전으로서 짧은 한 연구에서는 모두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측면과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론이 제시하고 있는 근대 이후 전쟁의 기본적인 분석틀이다. 이라크 전쟁의 정치, 군사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굳이 별도의 장을 통해 근대 이후 전쟁의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라크 전쟁의 진면목은 바로 이와 같은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 전쟁론은 다양한 함의를 가지며 전쟁론 분석에 관한 방대한 문헌이 축적되어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론이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정치, 사회적 해석을 통해 근·현대적 전쟁으로서 ‘국민전’

5) 이는 주로 이근욱의 논지를 따르고 있으며 이라크전 이후 전쟁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을 보다 정교히 하고 분석틀의 적용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라크 전쟁 이후 전쟁의 미래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분석틀은 매우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전’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접근법의 유용성과 활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더불어 이라크전은 이와 같은 분석기법이 적용됨으로써 그 본질적 특성이 드러나는 세계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한다.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근대 이후 전쟁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본 틀로서 ‘(전쟁의) 기묘한 삼위일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806년 당시 아우구스트 황태자의 부관으로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다가 치절한 패전을 경험하고 포로로서 1년 간 파리에 억류되었던 클라우제비츠는 프로이센 패전의 원인, 나폴레옹의 승전 원인 분석이라는 필생의 과제를 갖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1년간의 억류 기간 동안 프랑스 혁명군에 대한 관찰을 통해 군사제도와 군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정치, 사회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⁶⁾ 이를 통해 그는 당시까지 유럽의 전쟁사에서 이론으로서만 존재했던 ‘국민전’⁷⁾이 실제로 나타났으며 그 정치, 군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부들이 국민과 함께 가지 않고 스스로가 국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한 전쟁은 오로지 정부만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1793년 모든 상상력을 무색케 하는 힘이 출현하였다. 갑자기 전쟁은 국민 전체, 즉 모두가 자신을 시민으로 여기는 3천만 국민의 일이 되었다... 국민전체의 무게가 저울로 던져지게 되었다. 이제 확보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은 재래적인 한계를 모두 넘어서게 되었다. 어떤 것도 전쟁수행에 수반된 활력을 막을 수 없었고 따라서 프랑스의 적들은 결정적인 위협에 처했다.⁸⁾

한편 전쟁론은 그 전체성, 분석의 체계성, 명료한 문체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저작은 아니다.⁹⁾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클라우제비츠는 원고의

6) Peter Paret, “The Genesis of *On War*”,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 Peter Paret(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5~6

7) 이에 대해서는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제7장 ‘1. 국민전 개념의 이론적 전망: 계몽주의에서 클라우제비츠까지’를 참고할 것.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서울: 나남, 1996).

8)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 and trans. Michael Howard & Peter Paret (Princeton.: Princeton Press, 1984), pp.589~592. 클라우제비츠의 이러한 관찰은 마치 칸트나 헤겔이 자신들은 이루지 못했지만 프랑스에서 현실로 나타난 시민혁명을 관찰하면서 개념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에 비견되는 것이다. 박상섭, 1996, p.193.

9) Peter Paret, 1984, p.3

완성을 보지 못하고 돌연 병사했기 때문이다. 1827년 쓴 것으로 알려진 클라우제비츠의 서문에 따르면 당시 그가 도달한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제1편 1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정되어야 할 미완의 원고 상태다.¹⁰⁾ 16년 이상의 장고한 집필과정의 산물일 뿐 아니라, 사고의 변화가 전작에 반영되지 못한 “전쟁론”의 미완성은 이에 대한 일관된 이해를 어렵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¹¹⁾

전쟁론 전반에 걸쳐 일견 모순돼 보이는 많은 명제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제1편 제1장에 제시된 종합적 시각에 입각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²⁾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려는 행위로 정의되는 ‘전쟁’은 기본적으로 ‘결투’에 비유된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개념상 극단까지 치닫게 되는데 이는 내가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적이 나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개념상 이렇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한 번에 동원하여 일전을 벌이게 되는 ‘절대전쟁’이 된다.

그러나 현실의 전쟁은 ‘절대전쟁’까지 치닫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실제로

10) Clausewitz, 김만수 역, 『전쟁론 제1권(Vom Kriege)』 (서울: 갈무리, 2006), p.38

11) Aron은 심지어 “전쟁론”을 읽으면서 탐정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Raymond Aron, trans by Christine Booker & Norman Stone. *Clausewitz: Philosopher of War*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83), p.8. 전쟁론의 미완성은 많은 오해를 낳기도 하였다. 크레펠트는 이에 대해 전쟁론에 제시되어 있는 상반된 명제의 존재가 인간 실존의 다이내믹한 측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는 생명력을 획득하게 하였다고 하기도 한다 Martin van Creveld. “Eternal Clausewitz”, *Clausewitz and Modern Strategy*, ed. Michael I. Handel. (London: Frank Cass & Company Ltd, 1986). 저작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Clausewitz의 생애 및 지적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학자로 독일어 제 5판 “전쟁론”을 출간하고 있으며 그의 저작집을 집대성하여 발간하고 있는 Wherner Halweg와 영미권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Peter Paret을 들 수 있다. Carl von Clausewitz, *Historical and Political Writings*, eds and tras. Peter Paret and Daniel Mor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12) Clausewitz, trans. by Paret, 1984, Book One. On the Nature of War, 1. What is War?

상대와 상황에 대한 정보도 불완전하고, 모든 힘을 한 번에 모을 수도 없으며, 동맹국의 지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 번의 승리가 최종 결과는 아니며 패배한 국가는 종종 일시적 불행으로 여기고 재기를 노리기 때문에 이번 전투에 투입할 힘을 제한하고 미래를 기약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념상의 ‘극단성’이 현실적 ‘개연성’으로 대체된다. 전쟁은 절대전쟁이 아닌 ‘현실전쟁’이 된다.

전쟁이 현실전쟁이 되면서 ‘정치적 고려’가 전면에 나오게 된다. 전쟁의 극단성은 전쟁의 원래 목적인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제한되고 조절될 계기를 얻게 된다. 내가 적에게 요구하는 희생이 적을수록 상대의 요구도 적어지는 기제가 작용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전쟁의 본래의 동기인 정치적 목적이 전쟁행위로 이루어야 하는 목표 뿐 아니라 이의 달성을 위한 수단을 평가하는 척도로서도 작용하게 된다.

정치적 행위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만 올바르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 대중의 성격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매우 작은 정치적 동기가 그 자체로 전쟁의 본질을 뛰어넘는 효과,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을 생각할 때 전쟁은 곧 정치이며, 정치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발현되는 진정한 정치가 된다.¹³⁾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전쟁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독특한 본질상 전쟁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정치적 목적 그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클라우제비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목적이 마치 횡포를 부리듯이 무조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은 선택된 수단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하며,

13) 전쟁은 단순히 정치적 행위일 뿐 아니라 진정한 정치적 수단이고 정치적 접촉의 연속이며 다른 수단으로 이행되는 정치적 교류의 연속이다. Clausewitz, trans. by Paret, 1984, pp.86~87.

전쟁 수행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은 과감하게 바뀔 수도 있다... 만일 정치가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특정한 군사적 이동과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군 지휘관에게 엉뚱한 결과를 요구한다면 정치적 결전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마치 외국어를 완전히 통달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그 자신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처럼...¹⁴⁾

이와 같이 정치와 군사, 국민이 지닌 고유한 원리가 역동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전쟁은 클라우제비츠에 의해 카멜레온으로 정의된다. 전쟁은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마다 자신의 특성을 바꾸기 때문이다. 전쟁은 첫째, 증오와 적대감, 원초적 폭력성, 맹목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둘째, 전쟁은 개연성과 우연의 도박인데 여기서 자유로운 정신활동이 개입된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정치적 도구라는 종속성에 의해 순수한 이성의 영역에도 속하게 된다. 이러한 전쟁의 세 가지 속성은 각각 국민, 군인(장군), 정치가에 의해 대변된다. 이것이 전쟁의 기묘한 삼위일체이다.

나. 전쟁의 미래와 미래의 전쟁

현대전의 해석과 평가에 있어서 클라우제비츠의 분석틀을 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전쟁의 삼위일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전쟁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전쟁 자체가 초래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이론적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요컨대 클라우제비츠가 원래 목적했고, 구상했던 내용 그대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제시한 ‘전쟁의 역동성’은 현대전쟁을 분석하는데도 훌륭히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전쟁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측면들을 조명하고 강조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상술한 바 이근욱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미국의 실패 원인을 탈냉전

14) Clausewitz, trans. by Paret, 1984, p.608. 이러한 전쟁의 군사적 고유성은 일반적으로는 ‘전쟁술’에 의해, 구체적으로는 최고지휘관의 요구에 의해 반영된다고 한다.

이후 미국이 시도해 온 국방개혁 비전으로서 ‘군사혁신 비전’의 한계로부터 찾고 있다. 이근욱의 분석은 미국이 군사혁신의 성공과 그로 인한 전투효율성 및 효과성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파국적인 결과에 처하게 된 것은 ‘미래의 전쟁 양상’을 규정하는 정치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게 되는 정치적 맥락으로 이근욱이 강조한 것은 국제체제 수준에서의 힘의 배분 상태이다. 즉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만큼 중요한 것이 ‘어떤 전쟁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인데, 미국의 군사혁신론에는 이러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의 미래’ 예측에는 단순히 무기체제와 전략, 전술과 같은 군사적 요소뿐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또는 국제정치적 공간, 전쟁의 양상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이야기한 전쟁의 삼위일체에 이러한 국제체제 수준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는 앞 절의 짙막한 소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쟁 자체에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 중 정치의 영역이 얼마나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전쟁 자체가 두 개 이상의 정치적 실체가 벌이는 대결이라면 이미 국제정치적 현상이다. 그는 전쟁에 작용하는 정치의 원리 중 하나로 ‘극단까지 치닫게 되는 폭력현상’과 대비되는 ‘내가 더 적은 희생을 요구하면 상대도 더 적은 희생을 요구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제기한 바도 있으며 동맹의 원조를 전쟁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요컨대 클라우제비츠의 직접적인 지적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사고로부터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고려요소로서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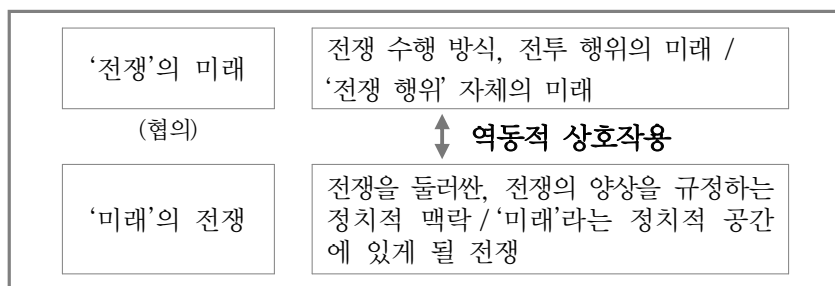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으로서 ‘국내정치적 요소의 고려’가 필요함은 이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바이다.

예컨대 베트남 전쟁 패전 이후 미국은 하나의 전쟁을 시작할 때 전쟁에 임하는 정치적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모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기초로 작성된 ‘와인버거 독트린’은 클라우제비츠의 명제에 대한 통찰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¹⁵⁾

요컨대 우리는 클라우제비츠의 논지로부터 그 동안 전쟁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전쟁의 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 군사영역은 ‘폭력의 사용’이라는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독자성을 누린다. 그러나 ‘폭력의 사용’과 관련된 ‘전쟁술’의 영역조차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영역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전쟁의 고유한 영역에서 시작된 전쟁술의 변화와 전쟁 양상의 변화가 ‘전쟁의 미래’라 할 때 이렇게 변화된 ‘전쟁의 미래’가 미래의 정치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과거 전쟁사에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쟁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국가 간의 세력균형을 일시에 변화시켜 국제질서의 판도를 변화시키곤 해왔다. 따라서 미래 전쟁의 예측에서 ‘미래의 전쟁’ 만큼이나 ‘전쟁의 미래’에 대한 정확하고 입체적인 분석 및 예측도 필요하다.

〈그림 2〉 전쟁 분석의 종합적 틀



15) Michael I. Handel, 박창희 역, 『클라우제비츠, 손자 & 조미니(Clausewitz, Sun Tzu & Jomini)』 (서울: 평단문화사, 2000), p.57

결국 우리는 클라우제비츠로부터 전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미래 전쟁을 예측하기 위한 ‘역동적인 분석의 틀’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동원된 무기체계와 군대, 전술, 전략적 요인들 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국내,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의 총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은 특히 이라크 전쟁과 같이 세계사적 맥락을 결정하는 전쟁의 분석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전쟁의 미래와 이라크 전쟁: 이라크전 실패 이유 분석

이라크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2001년 9월 11일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이 이끄는 알카에다에 의해 테러 공격을 당한 미국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1800년대 초 영국과의 전쟁 후 미 본토를 공격당해 본 적 없는 미국으로서는 일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량살상 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최우선적 안보위협 중 하나로 규정했다.

‘테러’는 현대 국방의 기본 메커니즘인 ‘억제(deterrence)’를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도전이었다. 억제가 기본적으로 ‘상대물 하여금 자신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것이 초래할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그 행동을 단념시키는 것’으로 정의¹⁶⁾된다

16) Avery Goldstein, *Deterrence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China, Britain, France, and the Enduring Legacy of the Nuclear Revolu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p.35.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공격에 대해 강력한 보복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격 행위 자체를 단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테러리스트들은 보복의 실체가 불분명해 이러한 억제가 어렵다. 이로부터 테러리스트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는 국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테러리스트에게 대량살상무기를 넘겨줄 가능성이 큰 국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전쟁’도 정당화되었다.¹⁷⁾

‘테러’라는 현상이 세계와 미국 안보의 핵심 주제가 된 것은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정치 및 국제정치적 환경의 본질적 특성과도 직결된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소련이라는 양극의 한 축이 사라짐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IT 산업의 폭발적 발전과 함께 이룩된 미국의 국력신장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국력격차를 더욱 현격한 것이 되도록 했다. 이로서 어떤 국가든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홉스(Thomas Hobbes)는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모든 사람이 사회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자들이 힘을 모아, 잠자는 동안 등 뒤에 칼을 꽂을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국가와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다. 이제 미국에 대한 국가적 도전이 좌절된 상황에서 ‘테러’는 미국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부각되었다. 초유의 군사강국으로서 미국이 일개 테러집단에게 일격을 당한 것은 마치 강자가 잠자는 동안 등을 찔린 것에 비유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테러와의 전쟁이었다.¹⁸⁾ 문제는

17) 이진수, “미국의 대 이라크진 수행에 관한 연구: 정치적 목적과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평화연구』 제13권, 1호(봄 2005), pp.192~193.

18) 홉스의 비유가 암시하는 바는 강자도 ‘리바이어던(중앙 권위)’의 창설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 국제사회에서 ‘세계적 수준의 리바이어던(Leviathan on the world level)’ 창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일방주의 보다는 국제사회의 동의에 기반한, 미국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정치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선택한 대응은 일방주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2차대전 후 국제사회가 이룩한 많은 국제법적, 제도적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며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특히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배제하면서 ‘자위권의 주장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던 기존 국제법은 상당 부분 손상되게 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은 동맹국들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았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과감하게 나서게 되는데 일조한 것이 미국의 ‘군사혁신 성공’이었다. 군사혁신이 촉발된 것은 정보혁명에 의한 신기술이 군사분야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부터였다. 미국의 ‘국방개혁 담론(discourse)’으로서의 군사혁신은 소련의 붕괴로 적을 잃어버린 미국이 국방비의 감축을 요구하는 여론에 맞서 제시한 새로운 대안의 성격이 강했다.¹⁹⁾ 어쨌든 미국은 군사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90년대 동안 눈부신 전승을 거두었다. 이라크전 결정의 중요한 한 원인이 ‘군사적 낙관론’이라 할 때²⁰⁾ 이는 군사혁신의 성공에 기인한 바 크다.

실제로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다국적군의 전격적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큰 어려움 없이 이라크를 점령하고, 독재자 후세인을 생포하였으며, 43일 만에 주요 전투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적 성공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0년 8월 오바마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활동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7년 5개월 동안 전쟁은 지루하게 계속되었으며, 이라크 현지인 뿐 아니라 미국 군과 다국적 군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었다. 공언했던 대량살상무기조차 발견하지 못한 미국은 이유 없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침략자로, 이라크 민간인을 학살하는 학살자로 전락했다.

19) 설인효, “군사혁신(RMA)의 전파와 미중 군사혁신 경쟁,” 『국제정치논총』 제52집, 3호 (2012), pp.9~10.

20) 이근욱, 2011, pp.87~93. 물론 이러한 낙관론에는 군사적 효과성에 대한 기대 외에 미국의 전쟁이 ‘민주주의 해방전쟁’으로 받아들여져 이라크 내에서 환영을 받으며 쉽게 안정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실패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특히 소위 이라크 해방작전 IV 단계에서 미 육군이 노정한 다양한 문제는 이제까지 상당한 수의 문헌들에 의해 분석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라크전에 임하는 미 육군의 구조, 문화, 인적자원 및 그 관리체계, 무기체계 및 군사교리, 유관기관과의 협조 능력 등을 지적해왔다.²¹⁾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 자체보다 이들이 제대로 인식되고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실패 원인을 이라크 전쟁의 양상을 규정할 정치적, 국제정치적 공간의 변화를 미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이는 특히 탈냉전기 미국의 ‘미래전쟁 구상’, 즉 ‘군사혁신 담론’의 한계에서 찾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지적 및 분석은 향후 ‘전쟁의 미래’를 구성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이룬다.

상술한 바 탈냉전기 미국의 군사혁신은 정보혁명에 의한 신기술을 군사분야에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적 군사혁신을 태동시킨 것으로 알려진 ‘군사기술혁명(MTR, 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은 소련과 대결하던 서유럽의 전장에서 처음 구상된 것으로 알려진다.²²⁾

21) 부형욱,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문제점 분석과 한국군에의 시사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라크 전쟁사 연구 워크숍 - 미국의 정책결정과정과 안정화작전 분석』 (2012. 11. 22).

22)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군사혁신은 1970, 80년대 소련에 의해 처음으로 인식되기 시작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소련은 미국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와 센서 기술을 결합하여 ‘정찰-타격 복합체계(reconnaissance-strike complex)’를 구축할 경우 전장에서 지상군의 진격 없이 후방 깊은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Pact)의 기갑부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Andrew W. Marshall, ‘Forward’, *The Military-Technological Revolution: A Preliminary Assessment*(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2002).

이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정규적 군사력을 갖춘 강대국 간의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다.

냉전이 끝난 후 미 국방당국의 고민은 소련 위협의 소멸로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와 함께, 미래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였다. 그 이유는 군사혁신의 과거사에 관한 연구들이 한결같이 한 시대의 최대 군사 강국은 결코 군사혁신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결론지어 왔기 때문이다.

군대는 한 국가의 명운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조직이다. 한편 강대국의 군대는 지난 전쟁에서 승리한 무기체계와 조직,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한 시대의 최대 군사 강국의 군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조직에게 시험되지 않은 새로운 전쟁 개념을 기초로 무기를 바꾸고, 조직을 혁신하고, 인적 구성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군사혁신은 주로 지난 번 전쟁에서 패배한 2위 그룹의 국가 군에서 나타났다.²³⁾

그러나 미국은 탈냉전과 함께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을 눈부시게 성공시켰다.²⁴⁾ 1991년 걸프전을 시작으로 이후 코소보전, 아프간전 등에서 군사혁신의 놀라운 군사효과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2003년 이라크전은 첨단무기에 의한 정밀타격, 효과중심의 선별적 파괴에 의한 마비의 달성이라는 점에서 초기 군사혁신 전문가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대부분의 군사효과성을 달성한, ‘탈냉전기 미국 군사혁신의 완성’이었다고

23) Richard O. Hundley, *Past Revolutions, Future Transformations: What Can the History of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Tell Us About Transforming the U.S. Military?*(Santa Monica, CA: RAND, 1999).

24) 미국이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을 성공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미국이 베트남전 패배의 교훈으로부터 일련의 국방개혁을 단행했던 점, 정보혁명에 기반한 군사혁신은 소련과 치열한 대결을 벌이던 냉전 후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점, 미국의 자유주의적 사회분위기와 군대문화가 혁신을 환영하고 또 정보혁명에 의한 군사혁신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적 성공이 역설적으로 전쟁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는 몇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전쟁의 승리는 군사작전 이외의 많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라크 전의 군사작전은 전쟁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고려와 준비를 포함하고 있었다. 예컨대 초기작전에서 첨단무기에 의한 정밀타격과 지상군 투입을 동시에 실행하여 상대에게 순간적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조성하는 복합적 작전이 구사되었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심리전 부대가 동원되어 3,000만 명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고 대민 방송을 통해 후세인 일가의 호화생활을 공개한 점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⁵⁾

그러나 이러한 고려와 조치로 전쟁의 전 양상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이라크 현지의 정치적 상황과 종파분쟁, 특유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전투능력의 압도적인 향상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부차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는 흔히 미 육군의 ‘기술위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향’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미 육군의 오랜 전통이거니와 군사혁신의 추진과정에서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는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단연 불확실성에서 찾았다. 따라서 그의 전쟁 개념에서 핵심을 이루는 요소는 전쟁의 ‘동태적 상(象, dynamics of war)²⁶⁾과 함께 ‘전쟁의 안개(fog of war)’ 개념이다. 전쟁의 안개란 전장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모든 요소를 통칭하는 것이다. 탈냉전기 미국적 군사혁신 개념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오웬스 제독의 저술 제목이 ‘전쟁에서 안개의 제거(Lifting the fog of war)²⁷⁾인

25) 김호삼, “이라크전의 교훈과 미래전 전망”, 『군사연구』 제119집(2003. 12), pp.34~35.

26) 여기서 ‘동태적 상’이란 어느 한 측면에서만은 이해할 수도 포착할 수도 없는 전쟁의 동태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는 ‘전쟁의 삼위일체’ 개념에 압축되어 있다.

27) William A. Owens, *Lifting the Fog of War*(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것은 많은 의미를 갖는다. 군사혁신의 성공이 가져온 ‘자신감’이 전쟁을 지배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오만함을 낳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혁신 담론은 미국 단일패권 하 미국이 수행하게 될 전쟁 형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담고 있지 않았다. 군사혁신 담론의 형성 초기에 ‘정보혁명에 의한 군사혁신’은 흔히 군대에서 인력의 비중을 낮춰 국방비를 혁신적으로 삭감하고 적은 희생으로 신속한 전승을 달성하도록 할 비전으로 소개되곤 했다. 이는 인력의 손실을 극히 기피하는 미국적 문화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첨단기술에 의한 전투효과성의 눈부신 향상은 전쟁수행에 있어서 육군 병력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게 하였다.

미국의 군사력 구성에서 병력의 경시는 탈냉전의 진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이익 범위가 전 세계로 넓어진 미국에게는 주요 거점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하게 이동하여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소규모 원정군(small scale expeditionary forces)’이 필요했다. 정치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세계 모든 곳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부대가 소규모화하면서 약화된 화력은 첨단무기의 정밀성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에서 미국이 마주한 전쟁은 충분한 인력의 투입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비정규전,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이었다. 이것은 탈냉전 후 조성된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벌어질 전형적인 전쟁의 양상이었다.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정규군을 동원하여 정면 대결할 수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 국가들은 다른 형태의 전쟁을 구상해야 하며 그것은 곧 게릴라 전쟁과 테러리즘의 형태를 띤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전쟁 실패’는 이렇게 전쟁의 양상 자체를 규정하는 ‘정치적 공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것은 상당 부분 역설적으로 ‘전쟁의 군사적 영역’에서의 눈부신 성공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의 이러한 오만함, 자신감을 국제체제의 특수한 형태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행위패턴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²⁸⁾ 즉 미국의 오만함은 군사혁신의 성공이나 기술 중심의 군사문화로부터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극체제 하의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 그 자체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동선은 양극체제나 다극체제의 경우 체제의 한 극을 이루는 강대국이 항상 다른 강대국들을 의식해야만 하지만 단극체제에서는 그러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권국은 ‘야심, 안이함, 자부심’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전쟁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패권국은 단순히 적 군사력의 격퇴뿐 아니라 정권교체까지 이루려는 ‘야심’을 갖게 되고, 우월한 국력으로 목표를 쉽게 달성할 것이란 ‘안이함’ 속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않게 되며, 높은 ‘자부심’으로 쉽게 패전을 인정하고 전장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4. 이라크 전쟁과 전쟁의 미래: 이라크전 이후의 전쟁 예측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미국은 현재 최악의 재정 적자 상황을 겪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쓴 전비는 약 4조 4천억 달러(약 4,697조원)로 2012 회계연도 미 연방 총 예산 3조 7,290억 달러를 크게 웃돌 뿐 아니라 현재 물가로 계산한 2차 대전 시의 전비 4조 1천억 달러마저 웃도는 수치이다.²⁹⁾ 미국은 2013년

28) 이동선, “21세기 국제분쟁의 새로운 양상과 국제적 대응: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중심으로,” 201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학술회의(2011. 8).

29) 미국 브라운 대학교 왓슨국제연구소 발표(2011.6.29)의 ‘전쟁비용’ 보고서 발표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철군 시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정부 공식 전비는 약 1조 달러이다. 『경향신문』, “미 연구소, ‘9.11테러 이후 전비 2차 대전 맞먹어’”(2011.7.1).

3월 ‘예산자동삭감조치’인 ‘시퀀스 트레이션(sequestration)’ 발동 이후 10월에는 연방정부 폐쇄를 겪는 등 최악의 재정 적자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연방재정 상황은 국방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미국은 향후 10년 간 4,870억 달러,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매년 대략 미 국방비 10% 수준의 삭감을 의미하는 액수이며 이것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미국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³⁰⁾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테러와의 전쟁’의 본래 목적에 충실한 전쟁이었다면 이라크 전쟁은 패권국 미국의 오만함이 더욱 드러난 전쟁이었던 것으로 혹평되기도 한다.³¹⁾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라크 전쟁보다 더욱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부은 것은 이라크였다. 지난 10여 년의 테러와의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고, 2011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강대국의 흥망과 관련된 케네디의 ‘군사적 과대팽창(military overstretch)’ 개념³²⁾을 떠올리게 한다. 패권국은 확장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상회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지점을 넘어서면 팽창을 통해 거둬드리는 이익보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모든 패권국은 언젠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힘을 상징했던 전 세계적 동맹 네트워크는 어느 순간 미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성이 무너질 경우 그 영향은 모든 지역에 미치게 되므로, 미국은 어느 한

30) 미 국방부는 2013년 초반부터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여파를 분석한 자료들을 제공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http://www.defense.gov/home/features/2013/0213_sequestration/

31) 이근욱, 2011, p.27.

32)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New York: Vintage Book, 1988).

지역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재정 악화 상황에서 이러한 책임의 이행은 매우 큰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기피, 실패는 이러한 현상의 전조(前兆)를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는 소위 패권국가의 ‘내적 피로(internal fatigue)’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³³⁾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중국은 G2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허용해야 했다. 중국의 안정적 경제성장과 강대국 부상에는 여전히 불투명한 점이 많지만 양극체제의 등장이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사실이다.

부상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탈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이나 구성주의 계열의 이론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한다 해도 미국과 중국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탈냉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러한 시각이 우세했으나 최근 미국 내에서도 미중 간 갈등을 전망하는 시각이 다시 우세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이 ‘판다’인가 ‘용’인가의 논쟁에서 중국이 ‘용’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닌 것이 되었다.³⁴⁾ 양국의 국방, 군사정책이 점차 ‘접근’ 대 ‘반접근’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³⁵⁾

33) ‘내적 피로’ 또는 ‘패권적 피로(hegemonic fatigue)’란 패권국 국민이 세계적 패권을 운용하는 부담감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세계적 개입에 대해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이론의 일부로 다뤄진다. ‘군사적 과대팽창’이 주로 과대한 군사비 지출을 통한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면 ‘내적 피로’ 개념은 ‘의지’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4) Kevin Rudd, “Beyond the Pivot: A New Road Map for U.S.-Chinese Relations”, *Foreign Affairs*, Vol. 92, No. 4.(March/April 2013).

35) 최근 중국의 군사전략은 ‘반접근/지역거부 전략(Anti-Access/Area-Denial)’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김재엽(2012),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만일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촉진시키고 미국이 ‘군사적 과대팽창’과 ‘내적 피로’의 메커니즘에 빠지게 함으로써 국제체제의 구조를 사실 상의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 전환되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라크전 이후의 ‘(광의의)전쟁의 미래’를 어떻게 구상해야 할까? 먼저 전쟁의 양상을 규정하는 ‘전쟁을 둘러싼 정치적, 국제정치적 공간(미래의 전쟁)’에 대한 고찰로부터 분석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근욱은 양극체제가 1945년에서 1991년 사이의 냉전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강대국 사이의 전면전 보다는 양 강대국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전쟁의 양상에 주목했다.³⁶⁾ 이는 강대국 사이에는 핵무기에 의한 ‘상호 억지’가 작용하여 사실 상 전면전이 회피될 것이고, 마치 냉전기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강대국들이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수행하는 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근욱은 향후 가장 주목되는 전쟁 양상은 강대국 간 전면전보다 강대국 중 어느 한쪽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제한전’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강대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약소국이 저항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³⁷⁾

한편 이동선은 앞서 단극체제 하 ‘전쟁의 장기화’ 원인을 패권국의 행태로부터 분석한 논문에서 향후 양극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전쟁은 다시 단기전으로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이유는 국력의 쇠퇴와

Battle):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전략 연구』 제54호(겨울 2012). 이는 중국이 자신의 이익권 내에 미국의 군사적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어세이머는 2001년 저서에서 미국이 ‘중국판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에 대해 대비해야 함을 말한 바 있다. John J. Mearsheimer,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 Company Inc, 2001), pp.401~402. ‘먼로독트린’이란 미국이 19세기 초 미주 대륙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패권국이 성장과정에서 취하게 되는 전형적인 정책 유형을 상징한다.

36) 이근욱, 2011, p.32.

37) 그러한 점에서 2003년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앞으로의 전쟁에도 많은 시사점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한다. 이근욱, 2001, p.32.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경험으로 미국의 야심과 안이함, 자만심이 감소될 것이며, 또 새롭게 부상할 중국이나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해, 또는 상호 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력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구조적 압박’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³⁸⁾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강대국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제한전의 양상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강대국 사이의 전쟁양상’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핵무기의 존재로 인하여 강대국 간의 전쟁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³⁹⁾ 그러나 양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결이 무의미 한 것은 아니다. ‘냉전’이라는 용어가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전쟁에 준하는, 또는 그 이상의 군사적 갈등과 적개심이 팽배한 시대’로 정의된다고 할 때 양 극을 이루는 초강대국 사이의 ‘가상대결’과 이에 입각한 군비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그 양상은 중대한 정치적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각 진영을 상대로부터 보호하고 따라서 그 진영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권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를 겨냥한 군사력의 개발과 전략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일정한 방식을 통해 상호 비교될 것이고, 그 결과가 전 세계적인 세력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대결 양상의 전개과정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38) 이동선, 2011, pp.389~394.

39) 강대국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은 부상국이 패권국 국력의 70%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전쟁이 발발한다고 예측한다. 다만 이러한 이론은 모두 핵무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던 과거의 사례에 입각하여 구축된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의 사례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핵전쟁에 이르지 않는 매우 제한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방식의 소규모 분쟁과 군사적 대결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문제나 센카쿠 문제 등을 둘러싼 국지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국의 ‘접근’ 및 ‘접근거부’ 능력의 상대적 우위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단순히 국제체제 상의 극성의 변화 및 그 결과 즉, ‘미래의 전쟁’ 뿐 아니라, 전쟁 수단과 수행 방식 상의 변화인 ‘(협의의)전쟁의 미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전쟁의 미래’로서 현재의 ‘군사혁신’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대단히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위한 몇 가지 수준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향후 ‘군사혁신의 전파’ 양상 및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다. 군사혁신이 ‘전쟁수행 방식의 극적인 변화’로 정의된다고 할 때 군비경쟁은 ‘군사혁신이 발생한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로 구분될 수 있다. 군사혁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표준적인 전쟁과 군비’ 모델⁴⁰⁾에 입각하여 군사력 건설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군사혁신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표준이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군사력 보유 수준 보다 ‘군사혁신의 이행 여부’가 더욱 중요해진다.⁴¹⁾

이와 같이 한 장소에서 발생한 군사혁신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군사혁신의 전파’로 정의한다. ‘군사혁신’ 현상과 별도로 ‘군사혁신의 전파’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군사분야에서 발생한 혁신적 변화가 주변국가로 전파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군사적 변화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국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⁴²⁾

필자는 이와 같이 탈냉전 이후 미국이 추진해 온 ‘군사혁신’의 전파에 관한 한 논문에서 ‘군사혁신의 전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국가에서

40) 여기서 ‘표준적인 전쟁과 군비’ 모델이란 당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전쟁 수행 방식을 일컫는 것이다. 군사혁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합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그에 입각한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별 국가의 군사태세와 군사력 건설은 각 국가들이 처한 위협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무기체계, 훈련방식, 전술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해지기 때문이다.

41) 국제정치에서 ‘군사혁신’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군사혁신’이 발생할 경우 세력균형이 일시에 크게 변경된다는 점이다. 설인호, 2012, p.143.

42) 설인호의 위 논문을 참고할 것.

이루어진 ‘군사혁신 수용의 완전성’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됨을 주장한 바 있다. 전쟁 수행 양상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혁신은 처음 성공한 나라의 정치, 사회, 군사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 한 채 다른 나라로 전파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프러시아 모델의 전파과정에 관한 분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사혁신 전파 / 수용의 완전성’이 ‘군사효과성’의 엄밀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1865년에서 1870년의 ‘독일통일전쟁’ 기간 동안 몰트케가 이끄는 프러시아 군의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은 그 탁월한 군사효과성으로 인하여 세계 육군의 표준이 되었으며, 그 결과 1900년이 되면 유럽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제도 상 모두가 이 모델에 기초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프러시아에서 이루어졌던 총참모부(general staff)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완전히 구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⁴³⁾ 특히 프랑스의 경우 군주국 독일과는 다른 공화정 체제 하에서 총참모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1차 대전의 초기 국면에서 프랑스는 독일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규모의 병력을 동원했고, ‘참호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프러시아 모델’의 군사효과성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전쟁 초기 신속한 동원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선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독일의 전술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전쟁은 독일의 계획과 달리 장기전, 총력전이 되었다.⁴⁴⁾

이러한 사례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과정에 주는 함의는 뚜렷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국방력과 군사력을 측정할 때 ‘미국이 이룩한 군사혁신 모델’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이 여전히 열세에 있는

43) 이 모델의 전파과정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수용한 나라는 일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설인호, 2012, pp.149~156.

44) 설인호, 2012, pp.156~158.

첨단 감시자산 및 정밀타격무기 보유수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열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하는 충분한 차단력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일컬어지는 ‘반접근 / 지역거부 전략’도 이러한 사례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군사혁신의 전개양상과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준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이 ‘군사혁신의 진정한 완성인가’에 대한 평가이다. 군사혁신의 실체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진해 온 군사혁신은 대체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인 것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군사혁신의 역사적 사례들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의 군사혁신이 과연 정보혁명의 군사적 잠재성을 완전히 구현한 ‘군사혁신의 완성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그 이유는 군사혁신의 과거 사례에서 많은 경우 하나의 혁신은 진정한 혁신의 시작일 뿐, 혁신의 최종 형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타났기 때문이다.⁴⁵⁾ 예컨대 현재의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군사전력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즉 사이버전이 진정한 군사혁신의 완성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무기체계 자체의 속성 및 전장 고유의 논리로서 ‘공격과 방어의 상대적 우위’에 관한 분석이다. 탈냉전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추구해온 군사혁신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감시 및 정찰 자산, 모든 전장의 구성요소를 하나로

45) 예컨대 탱크의 경우 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영국이었지만 그것의 군사적 잠재성을 완전히 구현한 것은 ‘전격전’을 완성한 독일이었다.

46) 다음 세대의 군사혁신으로서 유력한 것들로 ‘전 세계 실시간 타격력’과 ‘로봇전’ 등을 들 수 있다.

연결하는 정보 네트워크, 상대의 방공망을 자유자재로 돌파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와 같은 탁월한 군사효과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혁신을 실현한 측과 그렇지 못한 측 사이의 전쟁에서였다. 상술한 바 군사혁신이 전파되어 주요 강대국이 유사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전장의 양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공자(功者)와 방자(防者) 중 어느 편을 더 유리하게 하는가이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해야 하는 쪽이다. 세력권을 서서히 넓혀가고 있는 중국은 이러한 세력 투사를 막는 측이다. 연안을 방어하는 측이 고도의 스텔스 기능으로 무장한 화력수단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 이를 뚫고 침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⁴⁷⁾

한편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대결의 양상과 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해진다. 즉 양측 군사력 건설의 ‘상대적 경제성’에 대한 평가이다. 예컨대 냉전기의 마지막 순간 ‘전략방위 구상(SDI)’을 둘러싼 군비 경쟁에서 기술력과 경제력에서 밀린 소련은 결국 스스로 패배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서 미국은 천문학적 자원을 쏟아 부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침투 무기와 사이버 전으로 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값싼 수단이 개발될 경우, 전력과 전략의 균형은 일시에 뒤바뀔 수 있다. 공자와 방자의 ‘상대적 경제성’은 무기체계의 속성과 전장의 고유한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47) 이것이 현재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미국의 ‘공해전투’의 대결이다. 이 대결의 특수성은 공방 양자가 공히 장거리 정밀공격능력을 포함한 첨단 전력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군사혁신이 추진되기 시작한 탈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5. 결론 및 함의

요컨대 향후 이라크 전쟁과 그 결과로 초래될 ‘전쟁의 미래’는 양극체제의 도래와 함께 양대 강대국의 가상전쟁과 군비경쟁 및 이들의 주변부에서 발생하게 될 제한전의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양대 강대국 사이의 군사적 경쟁은 현재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혁신’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또는 ‘군사혁신의 진정한 완성 여부’에 따라, 그리고 현재의 군사혁신을 양측 모두 실현한 경우 공격과 방어 중 누가 유리한가 등의 요인에 따라 그 양상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에 의해 상호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회피되면서 중, 장기적인 군비경쟁의 양상에 따라 승패가 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양측 군비경쟁의 ‘상대적 경제성’이 그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강대국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전쟁은 기본적으로 ‘제한전’이 될 것이며 양 강대국 사이의 첨예한 경쟁에 따라 장기전이 되기보다 단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에 개입하는 양 강대국은 단극체제 하의 미국과 달리 야심과 안이함,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쟁에서도 강대국과 주변국 사이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비정규전, 대반란전은 중요한 전쟁의 일부가 될 것이며, 양 강대국은 상호간의 경쟁에 몰두한 사이 또 다시 이러한 전쟁양상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라크전에서의 교훈은 미래의 전쟁에서도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세계적인 군사표준을 따라가면서, 또한 한국이 처한 특수성 속에서 국방과 군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⁴⁸⁾ 따라서 미래 전쟁의

48) 여기서 ‘세계적인 군사표준’이란 1990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이룩해온 정보혁명에 기반한 전쟁수행 방식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후 일련의 전쟁에서 기존의 전쟁수행 방식을 압도하는 탁월한 군사효과성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은 전세계로 힘을 투사하고 분쟁지역에 신속하게 개입해야 하는 미국의 군사적 필요를 반영한

양상을 전망하는 것은 한국의 국방 및 군사발전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첨단의 군사력으로서,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방위체제의 구축 필요성으로 인해 미국의 군대를 하나의 표준이자 준거로서 삼아 국방발전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 한국의 국방현실이 충분히 고려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국방발전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

특히, 이라크전 실패의 교훈은 미국의 군사력 역시 완벽한 것은 아니며, 미국이 처한 특수한 현실로 인해, 국제체제의 패권국으로서 체계적으로 범하게 되는 오류도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국은 앞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전력과 전략의 우수성은 수용하되 한국과의 차이, 고유한 취약성은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수정, 변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⁴⁹⁾

무엇보다 향후 한반도의 현실에서 대비해야 할 다양한 분쟁 및 전쟁 양상에 대해 ‘미래의 전쟁’과 ‘전쟁의 미래’라는 두 측면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우리 고유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국제관계이론과 전쟁사 분석의 교훈이 상호 교류하면서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동안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해왔던 전쟁사에 대한 보다

것으로 모든 측면에서 우리 군에 유효한 것인지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49) 예컨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인도적 지원, 대량살상무기 제거, 북한 내 질서회복 및 안정화 작전 등의 수행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지상전력의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Bruce Bennett, “Preparing for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Collapse”, RAND Report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13).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군의 ‘군사 개혁 비전’은 여전히 ‘정예화된 첨단군’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적 필요에 입각해 볼 때 첨단 전력으로서 미국군의 면모 보다 이라크전 실패를 거울삼아 안정화 작전 발전에 주력했던 미국의 노력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 이라크전 이후 전쟁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재까지 발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고려사항의 일부를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다. 향후 전쟁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이론의 연구뿐 아니라 전쟁사의 다양한 교훈과 전장 고유의 논리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이라크 전쟁, 전쟁의 미래, 미래의 전쟁, 군사혁신, 군사혁신의 미래,
미중 군사경쟁 제한전, 안정화 작전

<ABSTRACT>

The Iraq War and the Future of War:
The Implication of Iraq War on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Seol, In-hyo

This study analyzes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of Iraq War by the framework which divides the concept of 'the war of the future' meaning the mode of war conditioned by surrounding future political situations, and the concept of 'the future warfare' implying the simple aspect of warfare, aspects of fighting itself which reflects on the innovation of measure of warfare. Moreover the paper anticipates 'the future warfare and future war' by using the same framework and relate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The failure of U.S. intervention in Iraq War originated in preparing for war based on the wrong future war image. The U.S. RMA, '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 which is a defense reform project after the demise of Cold War, successfully anticipated the future warfare, but it failed to prepare the country for the war of the future. Under the unipolarity formed during the post Cold War era, U.S. should be prepared for both the asymmetric warfare and guerrilla warfare because there has been a huge gap of national power between U.S. and other states, which lead into that the mode of war became a typical asymmetric warfare and guerrilla warfare. The war of the future after the Iraq War should be anticipa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relative decline of U.S. power and rise of China was happened as the result of Iraq War, so the bipolarity has been come again. Under this bipolar circumstances,

first virtual military conflict, which means there will be no real war with the existence of mutual nuclear deterrence and competition of military buildups between U.S. and China, will be central issue, and the limited war between two super powers and regional small powers will be possible in terms of future war scenarios. Especially the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will be shaped by the result of the second stage of RMA, the result of diffusion of RMA which was first started by U.S.

Key words : Iraq War, the war of the future, the future warfar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RMA), the future of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limited warfare, stabilization operation.